싸움꾼의 자질 갖추기와 무기 장만

(엡6:13~17)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싸움꾼의 자질 갖추기와 무기 장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싸움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어떤 것이며 무기를 장만해야 하는데, 어떤 무기가 있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전쟁을 치름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싸움입니까?
마귀를 향한 싸움이고, 앞에 나왔던 대로 마귀의 간계를 부서뜨리는 싸움입니다.
간계를 부서뜨리지 못하면 내가 그 간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도 않고 부서뜨리지도 않는 싸움이 없는 중립지대는 신앙인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이 아닌 다른 일반인의 삶에도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간계에 사로잡힐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 이 싸움은 또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종교라는 섹트에 국한되어진 그런 것이냐? 기도원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라야 싸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냐?

아니에요, 일상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싸움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를 알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가 불안하고 찜찜하고 온전히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세상 일 때문이지요?
돈이 안 벌리기 때문이고 이번에 자식이 대학에 잘 못 들어갔기 때문이고,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대학도 못 들어간 자식이 앞으로 뭘 하며 살 것인가 걱정스럽지요?
여러분의 걱정과 우울함과 만족하지 못함이 이 세상에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는 어떻게 작용을 하나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갖고 싶어 보이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 앞에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상실하면 큰일 나는 줄 알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 가두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치고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인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실패의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우리가 하늘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 사실을 속여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 땅 위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간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이제부터 내가 돈을 기필코 벌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다들 ' 아, 참 결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유다 왕국 전역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 짓밟히고 노약자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유린되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민 남 왕국 심장부였던 성전이 깡그리 약탈당하고 유린당합니다.
내 마음이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 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삶을 전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 편하게 아주 아무런 반성의 여지가 없이 이 세상 것들에 마음 놓고 걱정하고 있고,

마음 놓고 의욕을 부리면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초토화된 상태인데, 전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한 자질 갖추기와 장만해야 될 무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 취한 완전 군장입니다.
방배나 칼, 창이라든지 투구라든지 갑옷을 입고 갑옷 위에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흉배, 가슴 보호대, 그리고 정강이에는 각반을 차고 등등…
이걸 비유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싸움꾼으로서의 자질과 장만해야 될 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자질이 뭐냐 하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떼이아'인데 여기에 관사가 붙으면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든지 성경말씀 속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관사가 없는 알레떼이라라는 단어는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직함'이 더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즉, 첫째 자질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마음의 동선을 생각해야 정직을 이해합니다.
마음의 동선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벌써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직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가서 부장님을 만난 뒤에는 거래처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벌써 거래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바르고 곧은 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직은 하나님께로 도달한 마음의 동선을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하나님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에요, 지그재그든지 곡선이든지 ㄱ자로 꺾이든지 그런 직선이 아닌 형태라면 이건 정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마음이 돈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뒤에, 내가 힘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도달했어요, 그러면 직선이 아니잖습니까?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라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선이 직선이

아닐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질이라는 거예요.
이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영화 같은 데서 마피아 갱들도 예수님 십자가목걸이를 걸고 다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목걸이로 만들어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 판에 새겨 넣는 겁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 넣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차단시키고, 다른 곳을 향해 가려는 것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게끔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면 정직한 마음의 동선을 그리면서 하나님께로 가라 이겁니다.
이러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또는 자식이 문제인데 마음이 자식에게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는 이제부터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옆집의 불교 믿는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링컨이 하나님께 먼저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예를 해방하라고 하셔서 해방한 거면 이것은 신앙적 싸움이 되는데, 노예를 보며 노예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노예해방을 하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힘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라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순서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둘째 자질은 의입니다, 의.
정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었다면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는 인침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를 부여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때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 이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소년 다윗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선민으로서 할례 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할례의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즉, 환란과 곤고와 세상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는 전쟁을 마음속에서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이 전쟁을 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축구게임인 것을 알고 축구를 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생방송으로 볼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긴 걸 알고 볼 때는 참 즐겁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세 번째로,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로 나옵니다.
평안의 신발, 그러니까 정직의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으로서 의의 가슴보호대를 대고,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 옛날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바닥이 아파서 움직이며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이란, 앞에 말한 정직, 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움직여가는 정직,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합쳐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자가 웬 평안을 말하느냐, 전쟁에 나가는 자 같으면 적을 향한 적개심이나 분노나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분위기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평안을 신발로 삼고 전쟁터를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생긴 채로 두려움에 쫓겨서 행동하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 무엇에든 의욕에 차서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더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든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꺼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마음의 샬롬의 상태, 온전히 만족하고 기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 상태에서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중국영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주 고수들이 밥을 먹는데 동네 조무래기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밥을 계속 먹으면서 그들이 칼로 치면 피하며 젓가락으로 살짝 치면 나동그라지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흥분하고 패닉 상태가 돼서 열을 내며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수답게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도록, 모든 내 마음을 잡아끄는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정직을 갖추는 겁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심으면 정직이 갖춰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할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 스파크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 기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없으면 절대 전쟁과 이 세상의 삶의 활동을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런 자질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자질 하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느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방어의 무기이고 성령의 검인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이 뭐겠습니까?
에로스의 화살은 사랑의 감정을 일으킨다고 신화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귀의 불화살은 내 마음에 꽂히면 불을 일으킵니다.
어떤 불을 일으키는 것이며 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활은 이 세상의 말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모든 말 속에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든 언어 속에는 돈과 연관되지 않은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오늘 거기 좀 가봐야 돼' 그 말 속에도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를 만나 대화할 때도 '요즘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자식을 기를 때도 '이놈아, 네가 그래서 사람노릇 하겠어?'라는 얘기는 돈을 못 번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가 모든 언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의식을 할 정도 된 상태에서 아빠한테서 들은 말이 돈이라면, 그 화살이 자식의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나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악착같이 세배합니다, 세뱃돈 받으면 그 돈 쓰는 재미가 쏠쏠 하거든요, 벌써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마귀의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믿음이란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는 그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이게 벌써 세상의 말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돈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250만 명이 사막에서 40년을 삽니다, 5천 명이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도 열두 광주리를 걷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고 입고 하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는 하늘의 자식들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고 돈 없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저래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노릇 할 것인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세상 말인 거예요.
명품 가방 하나 못 들면 체면이 안 선다, 이것도 세상 말이거든요.
그 세상 말에 넘어가가지고 빚내서 계 들어서 명품 백 하나 장만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명품 백 없어도 메이커 파카 없어도 좋고, 자식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좋고, 그러나 내 만족과 내 기쁨은 자식에게도 명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를 품고 있는 언어의 화살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화살들은 이미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세상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 세상가치가 들어있어요.
그 세상가치가 들어있는 언어들이 내 속에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넌 지금 돈이 없으니 망할 거야, 너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 다 세상의 언어거든요.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 싸워가는 겁니다.
방패로 막아가요, 방패로.

그러면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삶은 돈 없어서 죽는 법 없다, 돈 있다고 특별히 잘될 것도 없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말씀인 겁니다.
근데 노예로 살면 큰일 난다, 이것도 세상의 마귀의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 말을 무찔러가는 겁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무찔러가면서, 세상의 말의 칼에 찢기고 상처 난 그 사람들, 지금 세상 말

이 들어와서 장악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칼을 갖고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김 집사, 나 죽겠어,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이때 ‘집사님,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돈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노예로 살아도 별 거 아니래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왕한테 돈 한 푼 없는 자기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마귀는 어떡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려 이 세상으로 가두어버리려고 하고요.

요 싸움, 요거 한 번 해볼 만한 싸움인 거예요.
요 싸움을 잘하면 완전히 다운 돼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단 3분 만에 말씀 한 마디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실전에서 이러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터득하느냐?
내일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정말 마귀가 우리 이름만 들어도 귀찮아하고 두려워할 만큼 싸움꾼의 자질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부서뜨릴 수 있는 무기를 장만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자질과 이 무기가 내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